

사이코 박쥐 동굴

사이코 박쥐 동굴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지하에 펼쳐져 있는 동굴입니다. 분화구에서 흘러나온 용암 표면의 층은 식었지만 아직 굳지 않은 내부에서 빠른 속도로 용암이 흐르면서 몇몇 갈래로 갈라지고 길이 350m에 달하는 탐험에 최적인 동굴이 형성되었습니다.

겨울 동안 이곳에서는 5종류의 박쥐가 겨울잠을 잡니다. 같은 아오키가하라 주카이 숲 지하에 있는 나루사와 얼음 동굴이나 후가쿠 바람 동굴과는 달리 사이코 박쥐 동굴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서 박쥐들이 겨울잠을 자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입니다. 인간의 서식지 침입으로 인해 한때 멸종 위기에 처했던 박쥐지만 이 동굴 안쪽에 특별보호지역이 설정되면서 현재는 그 개체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이코 박쥐 동굴을 탐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용암종유석이나 승상용암층 등의 관찰에 얼마나 시간을 쏟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은 20~30 분입니다. 경로에 따라 땅을 기어야 할 때도 있으니 입구에 준비된 헬멧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낮에 이 동굴을 방문하면 박쥐를 맞닥뜨리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